한국광고홍보학보
2021년 제23권 2호
http://www.kadpr.or.kr
한국광고홍보학회
https//doi.org/10.16914/kjapr.2021.23.2.42

코로나19 예방행동과 정보추구 의도 연구*

보호동기이론의 확장과 지지정당의 영향력 검증을 중심으로

김효정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홍혜현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본 연구는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기반으로 개인의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와 예방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슈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개인의 여당 지지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서울 시민 627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 보호동기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가 높을수록 예방행동 의도가 높아졌으며, 이때 집권 여당 지지는 위협 평가를 약화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위협 평가가 높을 때, 그리고 여당을 지지할 때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 의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호동기이론을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여당 지지 여부)의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호동기이론을 확장·재검증하고 건강 이슈의 정치화를 논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코로나19 • 보호동기이론 • 정당지지 • 예방행동 의도 • 정보추구 의도

1. 서론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명칭을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국문 약칭 코로나19)로 확정했으며, 한 달 후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hyo.kim@pusan.ac.kr, 주저자
*** hhong@cau.ac.kr, 교신저자

인 3월 11일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코로나19는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2021년 2월 현재까지 1억 명 이상의 확진자와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3-4단계를 오가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1년 2월 현재까지 8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약 1,5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사회 내 감염 확산이 실제로 통제되기 전까지, 개인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WHO와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개인행동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Kowalski & Black, 2021). 그러나 감염병 확산과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개인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연구자들은 2003년 유행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H1N1),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개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이행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왔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더 높고(예: Broche-Perez et al., 2020), 코로나19 개인방역지침 행동 의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Parlapani et al., 2020; Yildirim et al., 2021). 또한 연령 역시 코로나19 개인방역지침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예: Clark et al., 2020; Kowalski & Black, 2021). 인구통계학적 요인 외에도, 질병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심리적 요인이 감염병과 관련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 자아효능감 등은 다수의 이론(예: 건강신념모델)에서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예: 이병관·오현경·신경아·고재영, 2008; 조성은·신호창·유선욱·노형신, 2012).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 로저스(Rogers, 1975)의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호동기이론에 따르면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동기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해당 건강 이슈(예: 질병)가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한 평가(threat appraisal)와 이를 얼마나 잘 극복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coping appraisal)를 바탕으로 보호 동기가 높아지고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감염병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해 개인이

심각한 위협을 느낄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 동기가 형성되고,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필요한 행동을 취할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김미경·이은지, 2016). 이처럼 보호동기이론은 다양한 질병에 적용되어 그 효용성이 검증되어 왔으며(예: 김미경·이은지, 2016; 김여라, 2010; 우형진, 2007; 이민규·김영은, 2009; de Zwart et al., 2009; Kowalski & Black, 2020; Rogers & Prentice-Dunn, 1997),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의 예방행동과 관련한 예측을 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프레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주로 예방행동(예: 손 씻기)에 한정되었던 보호동기이론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영역일 뿐 아니라, 상황/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획득을 요구하므로 개인의 적극적인 정보추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Dillard, Li, & Yang, 2020; Liu, 2020). 정보추구는 필요량에 비해 부족한 정보를 채우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나타나며,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수행되는 특징이 있다(Dillard et al., 2020; 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또한 정보추구를 통해 적시에 적절한 정보가 얻어질 경우, 획득한 정보에서 제안하는 대로 예방행동을 수행하는 촉매가 되기도 한다(Liu, 2020).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상황에서는 사전 지식을 갖추기 어려워 새로운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의 정보추구와 예방행동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이 검증되기도 하였다(Li & Zheng, 2020; Liu, 2020). 하지만 보호동기이론에 입각한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예방행동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살펴봄에 있어 여러 연구자들은 개인의 정치성향과 정파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왔다. 하트와 친, 소로카(Hart, Chinn, & Soroka, 2020)는 양당 체제의 미국 정치 상황과 정파적 미디어가 코로나19의 정치화를 극대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샤피로와 박(Shapiro & Park, 2015)에 따르면, 과학적 이슈가 정치화될 때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들이 정치적 방향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해석되는 데 이용된다. 때문에 코로나19의 정치화가 심화될수록, 공중은 방역 전문기관과 보건 전문가들의 지침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기반으로 유통되는 편향된 정보들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중의 정확한 정보 습득과 방역지침 준수가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이슈의 정치화는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정치화되었다는 주장은 국내 언론 보도와 설문 조사들에서도 계속 등장되어 왔다(김수경, 2020; 박주현, 2020; 조승한, 2020). 김수경(2020)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민감도와 갈등이 높아져 있던 시기로서 감염병 확산이 공중 보건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시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나 설문조사들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보수 성향 응답자의 46.1%가 코로나19 사태를 위기라 답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9.7%가 코로나19 사태를 위기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질병 위협에 대한 개인의 보호 동기와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보호동기이론 문헌을 확장할 뿐 아니라, 건강 보건 이슈가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 개인의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 맥락에서 보호동기이론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수용자의 지지 정당이라는 정치적 변인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보호동기이론의 발전과 공중보건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실무적 함의 도출에 공헌하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1)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로저스(Rogers, 1975)의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은 기대-가치 모형(expectancy-value models)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그 대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기대와 가치들의 합으로 표현, 예측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건강 위협에 대한 개인의 행동 역시 이에 대한 기대와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들에 노출되는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적 보호동기들이 형성되면서 개인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Rogers, 1975; 1983).

초기 보호동기이론을 구성한 주요 요인은 심각성 인식(perceived severity), 취약성 인식(perceived susceptibility), 그리고 대처 효능감(response efficacy)이다(Rogers, 1983). 첫째, 외부 위협에 대해 인지된 심각성은 특정 위협의 유해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인식("magnitude of noxiousness")으로(Rogers, 1983, p. 159), 특정 위협으로 인해 나와 내가 속한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질병이나 건강 위험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클수록 위협을 피하기 위한 대안 행동 의도가 증가하게 된다. 둘째, 외부 위협에 대해 인지된 취약성은 특정 위협에 자신이 얼마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probability")으로(Rogers, 1983, p.158), 위험 요소에 의해 나 자신이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관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과 같은 건강 위험에 대한 취약성 인식이 높아질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 행동 의도가 높아지게 된다. 보호동기이론의 "위협 평가"는 건강보건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Becker & Maiman, 1975; Beacker et al., 1977; 1980; 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94)에서의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건강신념모델은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과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을 포함하는 위협 인식과 함께, 특정 건강 행위에 대한 행동적 평가가 개인의 질병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떤 건강행동을 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들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지각된 혜택(perceived benefits)과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를 포함한다(Beacker et al., 1977). 일련의 연구자들이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개인의 위협 인식과 행동적 평가, 그리고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행위 단서(cues to action) 등이 건강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예: 김지혜·조재희, 2019; 이병관 등, 2008; 장해·박주식·이경식, 2020). 다만 본 연구는 질병 예방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예: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 재정적 비용 등)나 개인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외적, 내적 사건인 행위 단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권고된 질병 예방행동에 대한 대처 효능감 인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신종 감염병으로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정부 기관 및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예방행동(예: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을 권고하는 상황이었기에 권고 행동과 관련한 효능감 인식, 즉 보호동기이론의

“대처 평가”(coping appraisal) 인식이 더욱 높은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각성과 취약성 인식이 외부 위협에 대한 평가(threat appraisal)라고 한다면, “대처 평가(coping appraisal)”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안된 행동에 대한 평가로서, 대처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으로 구성된다. 초기 보호동기이론에서 제안되었던 대처 효능감(response efficacy)은 특정 위협에 대해 제안된 행동들,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행동지침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다. 즉 특정한 질병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권고되는 예방법이나 치료법 등의 대안 행동들을 수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용성 및 결과에 대한 신념이다(Rogers, 1983, p.159). 제안되는 행동 방안의 효율성을 신뢰할수록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높아진다. 이처럼 초기의 보호동기이론은 건강 위험 사안에 대해 개인의 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 그리고 대처 효능감이라는 세 가지 신념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행동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건강·보건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Rogers, 1975; 1983).

이후 개인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 보호동기이론에 추가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외부 위협에 대해 인지된 자기효능감은 대안 행동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과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우형진, 2007; Bandura, 1997). 이는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행동통제인식(perceived behavioral control)과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의지가 자기 통제적인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보호동기이론의 설명력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김여라, 2010; Chau & Hu, 2002). 이처럼 수정된 보호동기이론 모델은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을 포함하는 “위협 평가(threat appraisal)”와 대처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을 포함하는 “대처 평가(coping appraisal)”로 구성된다. 건강에 대한 위협 인식과 이를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의 결합에 의해 보호 동기가 형성되고,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우형진, 2006; 차동필, 2005).

일련의 연구들은 보호동기이론을 구성하는 네 가지 변인(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

식, 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개인의 건강보호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예: 김미경·이은지, 2016; 김여라, 2010; 우형진, 2007; 이민규·김영은, 2009; Brug et al., 2009; de Zwart et al., 2008; Kowalski & Black, 2020; Rogers & Prentice-Dunn, 1997). 예를 들어 이민규·김영은(2009)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예: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는 심각성과 취약성, 자기효능감이 건강보호 행동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질환에 대해서는 네 가지 변인이 모두 건강보호 행동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여라(2010)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신종플루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과 취약성,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보호 행동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김미경·이은지(2016)는 보호동기이론의 네 가지 변인이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개인의 건강보호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메르스에 대한 뉴스 이용매체와 이용 정도, 신뢰도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다. 연구 결과, 메르스에 대한 높은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의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지각된 심각성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개인 건강보호 행위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이은지, 2016).

최근 코왈스키와 블랙(Kowalski & Black, 2020)은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던 2020년 상반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호동기이론의 네 가지 인식 변인이 개인의 코로나19 예방 행위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성별과 나이를 통제했을 때, 심각성 인식과 대처 효능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개인의 예방 행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질병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개인방역지침이 효과적이라고 믿을수록, 또 스스로 그러한 지침을 행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해당 권고안들(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 높은 행위 의도를 보였다. 취약성 인식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Kowalski & Black, 2020)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중간 정도의 취약성 인식을 보고하여 응답자 간 변량이 매우 낮았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서울 시민들의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를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인들을 통해 설명 및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보호동기이론의 기존 문헌들을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들을 제안하였다.

가설 1a: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높은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는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높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는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추구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예방행위만큼 중요한 것은, 개인이 매일 업데이트되는 관련 정보들을 꾸준히 습득하는 것이다(Liu, 2020).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비전문가인 개인은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추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다(Dillard et al., 2020; Huerta et al., 2016; Li & Zheng, 2020; Liu, 2020). 감염병 진행 상황과 개인 방역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행동, 조기 진단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의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이트와 파가노(White & Pagano, 2010)는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담당 기관의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기관의 대응 지침을 따르는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정보 습득을 통해, 불확실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공황, 혹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White & Pagano, 2010).

일련의 학자들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중의 적극적 정보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정보 탐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왔다(Chon & Park, 2021; Hubner & Hovick, 2020; Li & Zheng, 2020; Liu, 2020; Park, Ju, Ohs, & Hinsley, 2021; Yang, 2019). 천과 박(Chon & Park, 2021)은 가상의 전염병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인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감염병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감염병이 자신과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관련 정보 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허브너와 호빅(Hubner & Hovick, 2020)은 지카(Zika)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자신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부정적 감정과 관련 정보 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감정 반응,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 정보불충분 인식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Li & Zheng, 2020). 특히 이 중 걱정,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은 코로나19의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서, 위험 인식이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하여 정보추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Li & Zheng, 2020).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지속적인 정보추구의 중요성과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여,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인들이 개인의 감염병 관련 정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방역지침 행동의도(예: 마스크 착용 등)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련 정보추구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려 한다. 보호동기이론에서 설명하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는 직접적인 예방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정보추구와 획득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보호동기이론에 입각해, 신종플루(김여라, 2010; 이민규·김영은, 2009), 메르스(김미경·이은지, 2016), 코로나19(Adunlin et al., 2021; Kowalski & Black, 2020) 등의 감염병과 관련한 개인의 예방행동을 탐색한 바 있으나, 정보추구의 차원에는 적용된 바가 거의 없었기에 본 연구를 통해 보호동기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추구는 개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보의 양에 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다고 인식할 때, 이를 채우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시작된다(Dillard et al., 2020; 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따라서 정보추구는 매우 의식적 수준에서 자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개인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전달함으로써 실제로 예방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Liu, 2020). 예를 들어, 리우(Liu, 2020)는 온라인 채널(예: 소셜미디어, 모바일 앱, 온라인 뉴스미디어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개인의 코로나19 예방행동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미디어를 통한 정보 획득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worry)을 유도하여 후속 결과(예: 예방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리와 쩡(Li & Zheng, 2020)도 온라인에서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추구가 많을수록 개인의 예방행동 수행 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양(Yang, 2012)은 대학생들의 신종플루 관련 정보추구와 신종플

루 예방 백신 접종 의도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 관계를 발견하였고, 호빅과 빅스비(Hovick & Bigsby, 2016)도 개인의 정보 관련 행동이 운동, 식습관 등 건강증진 행동을 예측하는 선행 변수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보추구 행위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며, 건강 증진 또는 질병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건강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Wang, Shi, & Kong, 2020).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들(예: Chon & Park, 2021; Hubner & Hovick, 2020)이 질병의 위험 및 예방행동에 대한 인식이 정보추구 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을 발견한 점에 근거하여, 다음의 가설 2a와 가설 2b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보 관련 행동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Liu, 2020; Li & Zheng, 2020; Yang, 2012)을 바탕으로 두 종속변수 사이의 정(+)적 관계를 예측하는 가설을 추가로 제시하여 기존의 보호동기이론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가설 2a: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높은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는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높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는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는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치화된 코로나19(Politicized COVID-19)

과학, 건강·보건, 위험 이슈의 정치화(politicization)는 2010년대부터 활발히 논의되어 온 개념으로, 볼슨과 드러크먼(Bolsen & Druckman, 2015)은 “과학 고유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합의 결과에 대해 의심을 던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했고, 샤피로와 박(Shapiro & Park, 2015)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달리 해석되거나, 비과학자들(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과학적 증거를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은 기후 변화(Chinn, Hart, & Soroka, 2020), 유전자변형식품(GMO) (Smyth, Phillips,, & Castle, 2017), 탄소나

노튜브(Carbon Non Tube)와 수압 파쇄 기술(hydraulic fracturing) (Bolsen & Druckman, 2015), 나노테크놀로지(Jotterand, 2006), 원자력에너지와 줄기세포 기술(Druckman & Bolsen, 2011) 등 과학적 주제들의 정치화 과정을 분석해왔다. 객관적인 사실 정보들에 대해서도 개인은 주관적으로 인식,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해석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언론, 뉴미디어 채널이 공급하는 특정한 관점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치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서 많은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위험 인식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불확실한 위험 상황에서 개인들은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얻는 정보를 기반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대처하게 되는데, 언론의 정치적 당파성 및 정보 편식을 초래하는 뉴미디어 환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이슈가 급속히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다(박현영, 2020; Hart et al., 2020). 하트와 동료들(Hart et al., 2020)은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 미국 주요 언론의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내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 반응과 공중의 인식이 정파적 배열에 따라 분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전문가들보다 정치인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보도되었으며, 언론의 정치적 성향(민주당 vs. 공화당)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기사에서의 정치적 용어 사용이 다르게 나타났다(Hart et al., 2020).

코로나19의 정치화 경향은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칼비로와 동료들(Calvillo et al., 2020)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 더 낮은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을 보였으며, 반 홈과 동료들(van Hom et al., 2020)의 설문 조사 역시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응답자들에 비해 코로나19 위험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외부의 위협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사회심리학 연구들(Conway et al., 2020; van Leeuwen & Park, 2009; Hibbings et al., 2014)과 대치되는 듯 보인다.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로스 두탓(Ross Douthat)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미국 내 보수주의자 대 진보주의자의 반응은 기존 심리학 이론과 거의 일치했으나 2월 중순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Douthat, 2020). 실제

2020년 7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 결과, 바이든 대선후보 지지자들의 80%가 상점 봉쇄 정책이 너무 빨리 해제되었다고 응답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79%가 해제 결정에 찬성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서도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 더욱 강하게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계속되면서, 특히 방역과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또는 집권당)에 대한 지지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슈가 여당 대 야당 간 대결 구도에 맞추어 정치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돌아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의 국내 정치 상황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극에 달아 있었으며,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언론, 유권자 모두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져 있던 시기였다(김수경, 2020). 이러한 정치적 지형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단순히 의학적 원인과 처방을 요하는 공중 보건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이용"되었다는 것이다(김수경, 2020, p. 26). 이러한 경향은 국내 언론 보도와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박주현(2020)은 코로나19 감염병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국내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면 별 보도 기사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에 프레임과 보도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은 갈등과 위험적 요소에 초점을 둔 보도가 많은 반면, 진보 성향의 신문들은 도덕적 평가 및 예방, 대처 차원의 보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2020년 상반기에 시행된 국내 설문조사들의 결과는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12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수 성향 응답자의 72%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고 답한 반면, 진보 성향 집단은 그보다 적은 58%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시기에 따라 두 집단 간 차이는 최대 22%를 보이기도 했다(조승한, 2020). 한국리서치가 2020년 3월 25-27일 수행한 '코로나19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 향후 위기 혹은 기회로 작용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보수 성향 응답자의 46.1%가 위기라 답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9.7%가 위기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시민 개인의 정치적 성향, 보다 구체적으로는 집권 여당의 지지 여부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와 설문조사들을 바탕으로,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해 더 낮은 위협 평가와 더 높은 대처 평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의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가설 4a: 집권 여당 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b: 집권 여당 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개인의 정치 성향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보호동기이론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방역지침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실무자들에게도 주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정보추구 및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제한적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일련의 연구들에서 보수적 응답자일수록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낮고,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예방행동 의도가 더 낮은 경향을 발견한 바 있다(Rothgerber et al., 2020; Xu & Cheng, 2021).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감염병 통제 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손 씻기 등의 예방행동 의도와 관련 정보검색 의도가 높아짐을 밝힌 연구가 있다(김수연·노혜영·엄요한, 2020).

보호동기이론에 따르면 외부 건강 위협에 대한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가 모두 높을수록 관련 보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평가는 더 낮게, 대처 평가는 더 높게 인식할 것으로 예측했으므로,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나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의 여부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a: 개인의 여당 지지 여부는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1b: 개인의 여당 지지 여부는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20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기관이 자체 보유한 패널 중 서울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연령, 거주지역(구)에 따라 할당 표집하여 구성하였다. 약 3,000명의 패널들에게 설문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 중 총 627명이 온라인 설문을 완료하였다. 응답자의 나이는 최소 20세에서 최대 7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약 40세(M=40.34, SD=11.87)로 나타났다. 남성(49.8%)과 여성(50.2%)이 고르게 포함되었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 재학 또는 졸업(70.7%),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16.1%), 고졸 또는 고졸 이하(13.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8%가 지지 정당이 없음으로,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30.8%), 미래통합당(8.8%), 정의당(3.5%), 민생당(1.8%), 기타(2.4%)로 보고하였다.

2) 변인 측정

주요 변인들의 측정을 위해서, 기존 보호동기이론 문헌과 관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의 초반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을 묻는 질문을 배치하였으며, 정보추구 의도와 예방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지 정당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속성(예: 교육수준, 가계수입, 가구원 수 등)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은 다음의 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했으며, 각 진술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심각성 인식(perceived severity): 코로나19 감염병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예: Chon & Park, 2021)를 참고하여 “나는 코로나19 감염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나는 코로나19 감염의 피해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의 두 문장을 이용하였다(Cronbach’s α =.72; M=4.11, SD=.78).

취약성 인식(perceived susceptibility): 개인이 얼마나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경과 이은지(2016)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문장을 이용하였다: "지인들과의 접촉에 의해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에 의해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Cronbach's α=.84; M=3.98, SD=.74).

대처 효능감(response efficacy):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하는 권고 행동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김여라(2010)를 참고하여 총 세 문장을 구성하였다: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사람 많은 곳을 가능한 가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Cronbach's α=.80; M=3.99, SD=.72).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김여라(2010)와 설문조사 시점의 정부권고안을 바탕으로 세 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나는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킬 수 있다," "나는 사람 많은 곳을 가능한 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잘 지킬 자신이 있다."(Cronbach's α=.80; M=4.11, SD=.68).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으로 네 가지 예방수칙(모임 피하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행동 의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선행연구(김여라, 2010; 서미혜, 2016)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람 많은 곳은 가능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람 많은 곳으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을 것이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킬 것이다."(Cronbach's α=.86; M=4.44, SD=.61).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 의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속적인 정보추구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향후 더 찾아볼 의향이 있다"와 "코로나19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할 것이다"의 두 문장을 이용하였다(서미혜, 2016; Yang, Kahlor, & Li, 2014). (Cronbach's α=.88; M=3.75, SD=.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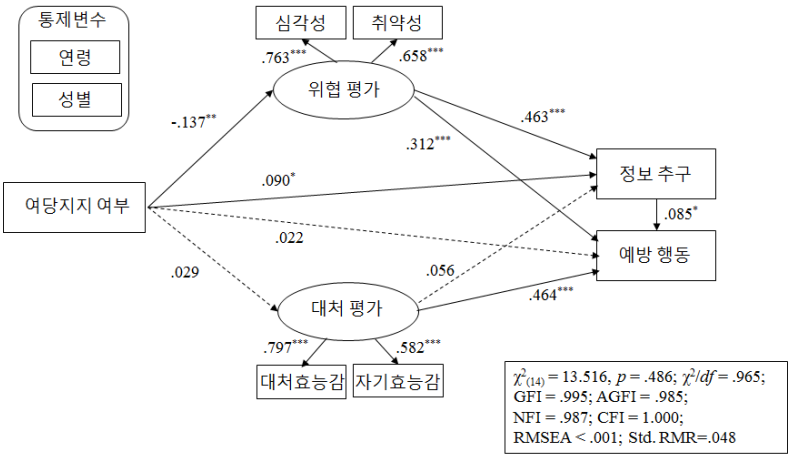
여당 지지 여부: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한 결과를 재코딩하여 이용하였다.

따라서, 설문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경우 '여당지지(=1)'로, 다른 정당을 선택하거나 지지정당 없음을 선택한 경우 '여당지지 않음(=0)'으로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30.8%(n=193)가 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69.2%(n=434)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 변수: 질병 관련 인식 및 효능감 등이 개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들(예: Broche-Perez et al., 2020; Clark et al., 2020; Kowalski & Black, 2020; Parlapani et al., 2020; Yildirim et al., 2021)을 바탕으로,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을 측정하여 분석에서 그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1)과 여성(=2)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연속적 숫자로 보고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변인들 간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모델(〈그림 1〉 참고)을 AMOS 프로그램(버전 25.0)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 모델 적합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 모델이 수집된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적합도 판단 기준인 카이자승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chi^2_{(14)}$=13.516, p=.486), 이는 연구 모델과 수집된 데이터 사이에 불일치(discrepancy)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모델 적합도 지수에 있어 여러 학자들(예: Hooper et al., 2008; Hu & Bentler, 1999; Iacobucci, 2010; Kline, 2005)이 제시하는 엄격한 수준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χ^2/df=.965(≤3); GFI=0.995(≥0.95); AGFI=0.985(≥0.90); NFI=0.987(≥0.95); CFI=1.000(≥0.95); RMSEA〈.001(〈0.06); SRMR=0.048(〈0.08). 따라서 다음 단계로 연구 모델에 포함된 각 경로가 유의한지 살펴봄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고 변인들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Note. ***p<.001, **p<.01, *p<.001

그림 1. 연구 모델 검증 결과

표 1.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기각비 (C.R.)	p-value	결과
H1a	코로나19 위협 평가 →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312	.323	.065	4.947	〈 .001	채택
H1b	코로나19 대처 평가 →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464	.525	.074	7.114	〈 .001	채택
H2a	코로나19 위협 평가 →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	.463	.611	094	6.523	〈 .001	채택
H2b	코로나19 대처 평가 →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	.056	.081	.094	.857	.391	기각
H3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 →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085	.066	029	2.301	.021	채택
H4a	여당지지 → 코로나19 위협 평가	−.137	−.176	.061	−2.867	.004	채택
H4b	여당지지 → 코로나19 대처 평가	.029	.034	.055	.625	.532	기각
RQ1a	여당지지 →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	.090	.152	.065	2.331	.020	
RQ1b	여당지지 →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022	.029	.041	.710	.478	

〈표 1〉은 본 연구의 모델 추정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이다. 먼저 가설 1a와 1b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효능감)가 예방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두 가설 모두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코로나19를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할수록(β=.312, p<.001; B=.323, SE=.065),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수록(β=.464, p<.001; B=.525, SE=.074), 예방행동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동기모델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된 결과이다.

개인의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효능감)가 정보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가설 2a와 2b),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추구는 개인의 위협 평가에 의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β=.463, p<.001; B=.611, SE=.094). 반면, 개인의 대처 평가는 정보추구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56, p=.391; B=.081, SE=.094). 따라서 가설 2a는 지지되고, 가설 2b는 기각되었다. 가설 3은 두 개의 종속변수(정보추구 의도, 예방행동 의도) 사이의 관계를 예측한 것으로서, 검증 결과 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추구 의도가 높을수록 예방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정(+)적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85, p<.05; B=.066, SE=.029).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개인의 여당 지지 여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 또는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가설 4a와 4b). 그 결과, 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코로나19의 위협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37, p<.01; B=−.176, SE=.061), 대처 평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9, p=.532; B=.034, SE=.055). 따라서 가설 4a는 지지되고, 가설 4b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여당 지지 여부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의도나 정보추구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연구문제 1a와 1b). 여당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나(β=.090, p<.05; B=.152, SE=.065), 예방행동 의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β=.022, p=.478; B=.029, SE=.041).

가설화된 경로 외에 통제변수(성별, 연령)의 효과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을수록 위협 평가(β=.136, p<.01), 대처 평가(β=.186, p<.001), 예방행동 의도(β=.133, p<.001)가 모두 증가하였고, 정보추구 의도(β=-.139, p<.001)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 이슈에 대한 고연령층의 관심과 예민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예: Clark et al., 2020; Kowalski & Black, 202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처 평가(β=.154, p<.01)가 높았으며, 예방행동 의도(β=.094, p<.0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협에 대한 평가(β=.020, p=.673)나 정보추구 의도(β=.014, p=.715)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5.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과 함의

신종 감염병 확산과 같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헬스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이론 중 하나인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 초기 상황에 적용하여, 개인의 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여기에서 보호 행동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감염병 예방행동 뿐 아니라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를 더 찾아보고자 하는 정보추구 의도까지 포함함으로써, 기존 보호동기이론 문헌의 종속 변인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 즉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위협 평가와 관련 정보추구 의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의 방역지침준수 의도를 설명함에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두 달 정도 지난 2020년 3월에 수집된 응답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 신종 감염병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자신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사항이 실제 감염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믿을수록, 그리고 스스로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을수록, 개인의 예방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가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표준화된 경로계수값이 각각 .312과 .464), 보호동기이론의 설명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보호동기이론 문헌에서 분석하던 건강증진(또는 보호) 행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추구 의도라는 종속변인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인들을 통해 개인의 코로나19 방역지침 행동의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 의도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질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두 가지 다른 차원의 결과(정보행동과 예방행동)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동기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 의도가 높을수록 감염병 예방 권고 행동들을 실제 수행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도 증가됨을 발견했는데,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중의 정보 관련 행동이 실제 예방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정보행동과 예방행동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던 선행연구들(예: Liu, 2020; Li & Zheng, 2020; Yang, 201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정보추구 의도를 설명함에 있어, 보호동기이론 변인 가운데 코로나19 위협 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관련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한 반면, 대처 효능감이나 자기 효능감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관리 이론(Uncertainty Management Theory: Brashers, 2001)에 따르면, 위험 상황에서 인식된 불확실성이 불안감이나 공포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이것이 개인의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코로나19 맥락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제로서 추가적인 정보 탐색 의도가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처 평가는 정보추구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이용은 예방행동의 효용성이나 효능감 인식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결정됨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감염병 관련 정보 행동의 경우, 예방행동에 대한 효능감 인식보다는 관련 정보행동 자체에 대한 효능감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예: 김영욱·김영지·김수현, 2018; 김효정, 2019; Hovick et al., 2020; Li & Zheng, 2020)에 따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나 정보불충분 인식, 개인의 정보 수집 능력,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 등이 정보 탐색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정보 획득 및 이용과 관련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연구 모델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의 정치적 성향(여당 지지 여부)에 따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당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과 취약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위협 평가의 영향력(β=-.140)은 연령의 영향력(β=.138)을 상쇄할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 (전)대통령 (또는 공화당)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위기인지를 규정하는 데 차이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예방행동(예: 마스크 쓰기)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박현영, 2020)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코로나가 단순히 과학·의학적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 또는 정당 지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던 정치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초기에 한국은 진보 성향의 정당이, 미국은 보수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진보 성향에 관계없이 집권당 지지자들이 코로나19 위협을 낮게 인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보수-진보의 정치적 이념보다는 집권 정당에 대한 지지가 코로나19의 위협 인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존의 다른 과학적 이슈(예: 지구온난화)에서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정치화가 일어나고 이슈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던 것(Dunlap et al., 2016; Guber, 2013)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정치화'가 작동했음을 추측하게 된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코로나19 관련 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개인의 정당 지지는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에는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 의도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앞서 가설에서 여당 지지자들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위협 평가를 보였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감염병 관련 정보추구 의도를 설명함

에 있어, 위협 평가와 다르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 주기적인 대국민·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주도했던 초기 상황에서, 정부를 신뢰하는(집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근 김수연 등(2020)의 연구에서 정부의 감염병 통제 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관련 정보검색 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대한 '위협 평가'와 위기 상황을 통제·운영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 및 신뢰' 간의 상이한 메커니즘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가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는 후속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하여 신종 감염병 예방행동 및 정보추구 의도에 대한 예측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공중보건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무적 함의들을 제공한다. 먼저, 감염병 확산 초기 단계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 모두 개인의 예방행동 의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서 두 측면 모두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즉, 감염병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위험 인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대안들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점, 그리고 공중 개인이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종합적인 메시지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중의 위협 평가 인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무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전파 경로로 나타나는 감염의 심각성, 신종 감염병의 치료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 그리고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 가족과 공동체에 야기될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취약성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은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비현실적 낙관주의 경향을 극복하는 메시지 개발이 필요하다(Atkin, 2004). 예를 들어 평범한 시민도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증거,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감염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이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협 평가를 강조하는 메시지와 함께,

개인의 대처 평가 인식을 증가시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첫째,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예방 권고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대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권고 행동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각 행동에 대한 효과와 과학적 증거, 통계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Yang, Barker, Goodman, Park, 2018). 또한 권고행동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가 해당 행위에 대한 개인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예: 김영욱 등, 2018)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중의 방역 지침과 권고 행동들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유관 기관들에 대한 공중의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고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예방 권고 행동을 개인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고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쉽게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이나 포스터, 기억하기 쉬운 문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인 정보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개인의 관여도와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Chun, Park, Heflick, Lee, Kim, & Kwon, 2018). 또한 행동수칙 권고 메시지에 등장하는 모델이나 출연자들에 대해 동질감을 느낄수록(Phua, 2016),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느낄수록(Malloch, & Hether, 2019), 예방행동에 대한 개인의 효능감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중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와 캠페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중이 감염병에 대한 정보 및 뉴스를 지속적으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협 평가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은 해당 질병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심각하고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도 높다고 인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좀 더 찾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중의 방역 정보 수준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실무자들은 대상자들의 위협 평가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앞서 공중의 심각성, 취약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전략들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개발하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 주소 등을 함께 제시한다면 효과적으로 정보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의 지지 정당에 따라서 특정 감염병에 대한 위협 평가 인식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개인이 감염병 확산과 방역, 치료 과정 등 일련의 정보들을

어떤 채널을 통해 얻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비록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미디어 채널을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여당 지지 여부에 따라서 특정 질병에 대한 개인의 심각성, 취약성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과는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노출되는 코로나19 관련 담론이 상이할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실제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코로나19 보도에서 사용되는 프레임과 표현들이 다름을 발견한 김수경(2020), 박주현(2020) 등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고 확산이 빠른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정파적 프레임이나 추측성, 감정적 기사보다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트와 친, 소로카(Hart et al., 2020)는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정치인이나 정당인을 주 취재원으로 하는 기사 풍토가 “코로나의 정치화”를 강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취재원으로 하는 보도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주요 언론 매체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감염병 관련 정보들이 확산되고 공유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Yoo et al., 2016),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부정확한 정보들을 바로잡는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조직 혹은 개인들이 담론 경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정보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고 예방행동을 장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현장의 실무자들은 개인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감염병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상이하게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정교한 소통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인용, 통계 수치 제공, 가짜 뉴스 검증 등 사실 중심의 정보를 개발·유통함으로써 사회 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분화된 공중의 성향과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맞춤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 쟁점화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공동체 문제임을 강조하는 메시지 개발도 중요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들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 및 확장될 필요

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기존의 보호동기이론의 개념화에 따라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를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설정하고, 각각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 그리고 대처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기에 개별 인식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지는 못했다. 네 가지 하위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특히 심각성-취약성 간, 대처 효능감-자기 효능감 간), 개별 변수로 설정할 경우 한 변수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침식(suppression)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각성 인식이 높으면서 취약성 인식은 낮거나, 대처 효능감은 높지만 자기 효능감은 낮은 경우 등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응답자가 서울 시민으로 한정된 점과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점은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2020년 3월 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4·15 총선을 앞두고 다수의 여론조사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인 이들 여론조사의 문항을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또는 '모름/무응답'인 경우 "그래도 하나의 정당을 고르신다면 어디입니까?"라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어느 정당에 대해)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물어 가능한 지지 정당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1).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응답을 강제하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당 지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 다소 높은 무당층 비율은 이에 기인한 바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설문조사 시점에 여당지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정당에 대한 응답을 꺼렸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당(더불어민주당) 외의 모든 응답을 '여당지지 않음'으로 재코딩함으로써 응답 기피자로 인한 영향을 가능한 줄이고자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동기이론에 기반한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포나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적 요인들이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중의 감정 반응이 예방행동(예: Ning et al., 2020; Sobkow et al., 2020)이나 정보추구 의도(예: Chon & Park, 2021; Hubner & Hovick, 202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을 보았을 때, 공중의 감정 반응이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인들과 함께 어떻게 개인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초기 보호동기이론에서 개인의 심각성, 취약성, 효능감 인식에 따라 공포소구가 작동한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Rogers, 1975), 감염병에 대한 인식 변인이 감정 변인에 미치는 상호 영향력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가 수행된다면 관련 문헌의 확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언론 매체나 소셜 미디어의 종류, 미디어 사용 양이나 빈도 등의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인의 선호 미디어나 이용 행태에 따른 영향력이 커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미디어 이용이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러한 인식 변인들이 정보추구나 예방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등을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의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설문조사 당시인 2020년 3월에는 주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으며, 이후 서구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일 년 여의 시간이 지난 2021년 2월 현재, 설문 당시보다 감염 확산의 범위와 크기가 훨씬 커짐과 동시에, 강력한 정부 조치(예: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설문조사(한국 갤럽, 2021)를 보면,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는 문항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의 70%,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의 76%, 무당층의 75%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지 정당의 영향력이 팬데믹 초기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의 통계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따른 비교·분석 연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미경·이은지 (2016).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뉴스이용매체와 뉴스이용정도, 뉴스신뢰도가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11*(1), 119~144.

김수경 (2020).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1), 22~43.

김수연·노혜영·엄요한 (2020). 건강신념모델에서 정부신뢰가 COVID-19 예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료경영학연구, 14*(4), 13~24.

김여라 (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1*, 5~25.

김영욱·김영지·김수현 (2018).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 연구. *한국언론학보, 62*(5), 72~106.

김지혜·조재희 (2019). 미세먼지에 대한 소셜 미디어 건강정보 사회적 시청이 질병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건강신념모델의 매개 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4), 37~65.

김효정 (2019). 위험인식, 두려움, 분노가 원자력정보 탐색과 처리, 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3*(2), 7~45.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4), 40~85.

박현영 (2020, 5월 18일). 마스크당과 노(No) 마스크당…코로나 시대 이념 전쟁터 된 미국. *중앙일보*, 27면. https://news.joins.com/article/23778953

우형진 (2006). 문화계발이론의 '공명효과'(resonance effect)에 대한 재고찰: 위험인식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6), 254~276.

우형진 (2007). 텔레비전 뉴스 시청이 시청자의 건강증진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2), 308~333.

이민규·김영은 (2009). 질병 관련 인터넷 정보 이용 효과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4), 506~539.

이병관·오현경·신경아·고재영 (2008), 행위단서로서의 미디어 캠페인이 인플루엔자 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건강신념모델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0*(4), 108~138.

장해·박주식·이경식 (2020).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해외 감염병 예방 행동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적 행위단서로서의 SNS 구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2*(2), 265~302.

조성은·신호창·유선욱·노형신 (2012). 결핵예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공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 건강신념모델의 확장. *홍보학연구, 16*(1), 148~177.

조승한 (2020, 5월 30일). 한국과 미국의 보수, 코로나19를 보는 태도는 다르다.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705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1). *여론조사결과 현황*.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list.do?menuNo=200467

차동필 (2005). 공포 소구 모델 EPPM의 예측력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7*(3), 91~114.

한국갤럽 (2021). *갤럽리포트 G20210219*.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180

Adunlin, G. A., Adedoyin, C. A., Adedoyin, O. O., Njoku, A., Bolade-Ogunfodun, Y., & Bolaji, B. (2021) Using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o examine the effects of fear arousal on the practice of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rural area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1*(1-4), 168~172.

Atkin, C. (2004). Media intervention impact: Evidence and promising strategies. In R. J. Bonnie & M. E. O'Connell, National Research Council (US) and Institute of Medicine (US) Committee on Developing a Strategy to Reduce and Prevent Underage Drinking (Eds.), *Reducing underage drinking: A collective responsibilit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Becker, M. H., & Maiman, L. A. (1975). Sociobehavioral determinants of compliance with health and medical care recommendations. *Medical Care, 13*, 10~24.

Becker, M. H., & Maiman, L. A. (1980). Strategies for enhancing patient compliance. *Journal of Community Health, 6*(2), 113~135.

Becker, M. H., Maiman, L. A., Kirscht, J. P., Haefner, D. P., & Drachman, R. H. (1997).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diction of dietary compliance: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4), 348~366.

Bolsen, T., & Druckman, J. N. (2015). Counteracting the politicization of sci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65*(5), 745~769.

Brashers, D. E. (2001). Communication and uncertainty manag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1*, 477~497.

Broche-Pérez, Y., Fern ndez-Fleites, Z., Jiménez-Puig, E., Fernández-Castillo, E., & Rodr guez-Martin, B. C. (2020). Gender and fear of COVID-19 in a Cuban population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9.

Brug, J., Aro, A. R., Oenema, A., De Zwart, O., Richardus, J. H., & Bishop, G. D. (2004). SARS risk perception, knowledge, precautions, and information sources, the Netherlands. *Emerging Infectious Disease, 10*(8), 1486~1489.

Calvillo, D. P., Ross, B. J., Garcia, R. J., Smelter, T. J., & Rutchick, A. M. (2020). Political ideology predicts perceptions of the threat of covid-19 (and susceptibility to fake news about i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8), 1119~1128.

Chau, P. Y. K., & Hu, P. J. (2002). Examining a model of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by individual professional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8*(4), 191~229.

Chinn, S., Hart, P. S., & Soroka, S. (2020). Politicization and polarization in climate change news content, 1985~2017. *Science Communication, 42*(1), 112~129.

Chon, M., & Park, H. (2021). Predicting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actions in a public health crisis: Testing fear,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and behavioral intention in the framework of the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Health Communication, 36*(4), 476~486.

Chun, S., Park, J. W., Heflick, N., Lee, S. M., Kim, D., & Kwon, K. (2018).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responses to graphic health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A comparison of smokers and nonsmokers. *Health Communication, 33*(8), 1013~1019.

Clark, C., Davila, A., Regis, M., & Kraus, S. (2020). Predictors of COVID-19 voluntary compliance behavior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Global Transitions, 2*, 76~82.

Conway III, L. G., Woodard, S. R., Zubrod, A., & Chan, L. (2020, April 13). Why

are conservatives less concerned about the Coronavirus (COVID-19) than liberals? Comparing political, experiential, and partisan messaging explanation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ontana. doi:10.31234/osf.io/fgb84

de Zwart, O., Veldhuijzen, I., Elam, G., Aro, A. R., Abraham, T., & Bishop, G. D. (2009). Perceived threat, risk perception and efficacy beliefs related to SARS and othe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Results of an interna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6*(1), 30~40.

Dillard, J. P., Li, R., & Yang, C. (2020). Fear of Zika: Information seeking as cause and consequence. *Health Communication*, 1~11. doi:10.1080/10410236.2020.1794554

Douthat, R. (2020, March 31). The coronavirus and the conservative mind.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31/opinion/covid-conservatism.html

Druckman, J. N., & Bolsen, T. (2011). Framing, motivated reasoning, and opinions about emergent technologies. *Journal of Communication, 61*(4), 659~688.

Dunlap, R. E., McCright, A. M., & Yarosh, J. H. (2016). The political divide on climate change: Partisan polarization widens in the U.S.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8*(5), 4~23.

Griffin, R. J., Dunwoody, S., & Neuwirth, K. (1999). Proposed model of the relationship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to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behaviors. *Environmental Research, 80*, 230~245.

Guber, D. L. (2013). A cooling climate for change? Party polarization and the politics of global warmi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7*(1), 93~115.

Hart, P. S., Chinn, S., & Soroka, S. (2020). Politicization and polarization in COVID-19 news coverage. *Science Communication, 42*(5), 679~697.

Hibbing, J. R., Smith, K. B., & Alford, J. R. (2014). Differences in negativity bias underlie variations in political ideology. *Behavioral & Brain Sciences, 37*, 297~307.

Hooper, D., Coughlan, J., & Mullen, M. R.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The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6*(1), 53~60.

Hovick, S. R., & Bigsby, E. (2016). Heart disease and colon cancer prevention beliefs

and their association with information seeking and scanning.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1*(1), 76~84.

Hovick, S. R., Bigsby, E., Wilson, S. R., & Thomas, S. (2020).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nd intention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health risk messages: A test of a reduced risk information seeking model. *Health Communication*, 1~9. doi:10.1080/10410236.2020.1804139.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ubner, A., & Hovick, S. (2020). Understanding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outbreak: The case of Zika virus. *Risk Analysis, 40*(6), 1212~1225. doi:10.1111/risa.13456

Huerta, T., Walker, D., Johnson, T., & Ford, E. (2016). A time series analysis of cancer-related information seeking: Hints from the 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s survey (HINTS) 2003-2014.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1*, 1~8.

Iacobucci, D. (2010).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Fit Indices, sample size, and advanced topic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0*(1), 90~98.

Jotterand, F. (2006). The politic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ts implications for nanotechnology.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34*(4), 658~666.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Kowalski, R. M., & Black, K. J. (2021). Protection motivation and the COVID-19 virus. *Health Communication, 36*(1), 15~22.

Li, J., & Zheng, H. (2020). Online information seeking and disease prevention intent during COVID-19 outbreak.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doi:10.1177/1077699020961518

Liu, P. L. (2020). COVID-19 information seeking on digital media and preventive behaviors: The mediation role of worry.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3*(10), 677~682.

Malloch, Y. Z., & Hether, H. J. (2019). The dark side of addiction support forums: Impacts of poor quality and insufficient emotional support on perceived support availability and health efficacy.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4(4), 432~441.

Ning, L., Niu, J., & Bi, X. et al. (2020). The impacts of knowledge, risk perception, emotion and information on citizens' protective behaviors during the outbreak of COVID-19: A cross-sectional study in China. *BMC Public Health, 20*, 1751.

Park, T., Ju, I., Ohs, J. E., & Hinsley, A. (2020). Optimistic bias and preventive behavioral engagement in the context of COVID-19. *Research in Social and Administrative Pharmacy, 17*(1), 1859~1866.

Parlapani, E., Holeva, V., Voitsidis, P., Blekas, A., Gliatas, I., Porfyri, G. N., Golemis, A., Papadopoulou, K., Dimitriadou, A., Chatzigeorgiou, A. F., Bairachtari, V., Patsiala, S., Skoupra, M., Papigkioti, K., Kafetzopoulou, C., & Diakogiannis, I. (2020).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in Greece. *Front Psychiatry, 11*(821), 1~7.

Phua, J. (2016). The effects of similarity, parasocial identification, and source credibility in obesity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on diet and exercise self-efficac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5), 699~708.

Rogers, R. W. (1975).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sychology, 91*, 93~114.

Rogers, R. W. (1983). Cognitive and psychological process in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A revised theory of protection motivation. In J. Cacioppo & R. Petty (Eds.), *Social psychology* (pp. 153~176). NY: Guilford.

Rogers, R. W., & Prentice-Dunn, S. (1997).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In D. S. Gochman (Ed.), *Handbook of health behavior research 1: Personal and social determinants* (pp. 113~132). Plenum Press.

Rothgerber, H., Wilson, T., Whaley, D., Rosenfeld, D. L., Humphrey, M., Moore, A. L., & Bihl, A. (2020, April 22). Politicizing the COVID-19 pandemic: Ideological differences in adherence to social distancing. *PsyArxiv Prepr*. doi:10.31234/osf.io/k23cv

Shapiro, M. A., & Park, H. W. (2015). More than entertainment: YouTube and public responses to the science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Social Science Information, 54*(1), 115~145.

Smyth, S., Phillips, P., & Castle, D. (2017). (Mis)information and the politicization

of food security. *Animal Frontiers, 7*, 33~38.

Sobkow, A., Zaleskiewicz, T., Petrova, D., Garcia-Retamero, R., & Traczyk, J. (2020). Worry, risk perception, and controllability predict intentions toward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Frontiers in Psychology, 11*, 582720.

van Holm, E., Monaghan, J., Shahar, D. C., Messina, J. P., & Surprenant, C. (2020). The impact of political ideology on concern and behavior during COVID-19. *Available at SSRN 3573224*. doi:10.2139/ssrn.3573224

van Leeuwen, F., & Park, J. H. (2009). Perceptions of social dangers, moral founda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3), 169~173.

Wang, X., Shi, J., & Kong, H. (2020).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 review and meta-analysis. *Health Communication*, 1~13. doi:10.1080/10410236.2020.1748829

White, L., & Pagano, M. (2010). Reporting errors in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with an application to Pandemic Influenza A/H1N1. *Epidemiologic Perspectives & Innovations: EP+I, 7*, 1~12. doi:10.1186/1742-5573-7-12

Xu, P., & Cheng, J. (2021).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distancing and mask-wearing in the pandemic of COVID-19: The role of need for cognition, self-control and risk attitu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110706.

Yang, J. Z. (2019). Whose risk? Why did the US public ignore information about the Ebola outbreak? *Risk Analysis, 39*(8), 1708~1722.

Yang, M., Barker, K., Goodman, D., & Park, H. L. (2018).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to promote behavioral change inpatients at elevated risk for breast cancer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The Breast Journal, 24*(6), 1097~1098.

Yang, Z. J. (2012). Too scared or too capable? Why do college students stay away from the H1N1 vaccine? *Risk Analysis, 32*(10), 1703~1716.

Yıldırım, M., Geçer, E., & Akgül, Ö. (2021). The impacts of vulnerability, perceived risk, and fear on preventive behaviours against COVID-19. *Psychology, Health & Medicine, 26*(1), 35~43.

Yoo, W., Choi, D. H., & Park, K. (2016). The effects of SNS communication: How

express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predict MERS-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in South Kore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2*, 34~43.

논문투고일: 2021년 02월 26일
논문심사일: 2021년 04월 09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22일

Abstract

Protective Health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Extending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nd Testing the Role of Political Orientation

Hyo Jung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Hyehyun Hong**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Based on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cognitive factors that influence protective health behavior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also analyzed how individuals' political orientation (i.e., individual support for the ruling political party) influences their percep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regarding COVID-19. An online survey of 627 Seoul citizens was conducted in March 2020, which was the early stage of the spread of COVID-19. Consistent with the PMT literature,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s' threat appraisal (perceived severity and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coping appraisal (response efficacy and self-efficacy) positively influenced their intentions of preventive behaviors against COVID-19. Intentions to seek more information about COVID-19 was positively influenced only by threat appraisal. Regarding the impact of political orientation,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ers of the ruling party reported the lower level of threat appraisal and the higher level of coping appraisal, as compared to non-supporters. An individual's political orientation also influenced their information seeking intention; supporters of the ruling party were more likely to seek more information regarding COVID-19 than non-support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COVID-19 •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 Political orientation •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s • Information seeking

* First Author, hyo.kim@pusan.ac.kr
** Corresponding Author, hhong@cau.ac.kr